

순천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 대책 절실

폐기물 공공시설 반입금지 이후 반입량 110여t 감소 적자 운영 쓰레기 대란 등 시민 피해 우려



순천 자원순환센터 전경.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이 적자운영으로 가동 중단된 가운데 시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쓰레기 대란 등 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순천시와 자원순환센터에 따르면 사업 시행 초기부터 생활폐기물 반입량 저조로 그동안 적자 운영을 해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지난 2일 결국 멈춰섰다.

지난 2014년 4월 준공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전체 사업비 787억 규모로 순천에코그린(대전건설 외 5개 투자사)이 총 76억을 출자하고 대출 454억과 정부 지원금 257억원 등을 조달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29년 순천시에 기부 채납

하는 방식으로 가동됐다.

순천에코그린측은 순천시와 구례군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량을 근거로 1일 반입량을 169.5t으로 추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되기 전인

2014년 1월 순천시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의 공공시설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개정으로 폐기물 반입량이 110여t으로 감소하면서 적자운영을 해오고 있었다.

순천시는 뒤늦게 종량제 봉투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재개정했으나 반입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적자 운영이 계속되면서 순천시와 순천에코그린은 협의를 통해 중재를 진행해 왔지만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수요예측에 따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적인 판단을 내렸고, 순천시는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순천에코그린 관계자는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대금독촉과 현재까지 118억여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해 왔지만 시의 원론적인 대응으로 더이상 가동이 힘들다"며 "적자 해소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 조례로는 사실상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업체에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폐기물은 기존 왕지매립장으로 유동해 민원발생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오는 9월 미국 시온마켓(LA·애틀랜타·샌디에이고) 6개지에서 판매될 순천시 우수 농수특산물 600여t이 지난 6일 선적됐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우수 농·특산물 미국서 판촉활동

순천시는 지난 6일 미국 판촉을 위한 지역 우수 농특산물 600여t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적된 농특산물은 모두 40여품목 2억6000만원 상당으로 9월 초 미국 시온마켓에서 계획된 판촉활동에 사용된다.

주요 품목은 순천농협 남도식품과 매일식품, 낙안전통식품, 쌍지들, 씨스타, 경덕농수산물에서 생산된 김치류, 반찬류, 젓갈류, 장류, 소스류, 보리떡, 약과, 누룽지, 해조류, 견유물 등이다.

미국 판촉활동은 9월6일부터 4일간 LA와 애틀랜타, 샌디에이고 시온마켓 6개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교민이 많은 LA 지역 시온마켓 4개 지점에서 펼쳐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이 안정적으로 미국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까지 농산물 2500t의 수출(55억원) 실적을 올리며 올해 목표액 100억원의 55%를 달성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순천 글로벌 마그네슘 부품 특화단지 도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일자리 창출·남북 경제협력 기대

자동차 등에 쓰이는 마그네슘 부품 특화 단지를 순천에 조성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 앞에 섰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관련해 최근 균형발전위원회 입지 적정성 검토를 거쳤다.

오는 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하기로 했다.

추진이 순조로우면 기술성 평가, 타당성 심사 등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지자체는 전망했다.

순천시와 전남도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 사업 기획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2025년까지 국비 등 2천686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연구개발(R&D) 센터 구축, 특화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 북한 광물자원과 남한 첨단기술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도 주목 받는다.

환경남도 단전에 매장된 마그네사이트는 약 60억t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미국 지질조사소(USGS)는 2016년 분석했다.

순천 해룡산단에는 포스코가 2007~2016년 917억원을 투자해 연간 600mm의 협폭 판재 670t, 2000mm 광폭 판재 6400t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마그네사이트를 가공한 마그네슘은 철과 알루미늄보다 강도가 높으면서 가볍고 진동 흡수성이 우수하다. 전자파 차단 효과와 뛰어난 자동차, 항공기, 철도 등 수송 기기와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본체와 부품 등에 활용된다.

자동차의 경량화로 연비를 높이고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세계 시장 규모도 2015년 175조원에서 2023년 475조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마그네슘 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소재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 제조업의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협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식품업소 위생 점검

정읍시, 식중독 예방교육도

정읍시는 피서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정읍지역 피서지 주변 업소 23개소와 가정간편식 취급업소 1개소다.

아울러 피서지 주변 무신도 식품점객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여부, 건강 진단 이행 여부, 무신도 음식·식육류 등 조리판매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펼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확대

지난해 대비 38억 증가 2개월 이내 용자 신청

중소기업 기업 살리기에 나선 전주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트워주기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주시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총 60억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반기 82억원을 포함해 총 14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3억9000원과 비교하면 약 38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시는 전주시 소재 제조업체·벤처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용자 지원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자금용자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용자 용도는 운전 및 창업 자금으로 한도액은 연간대출액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하되 기업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내 지원키로 했다.

용자 기간은 2년으로(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일반기업은 3.0%, 여성·장애

인 기업, 벤처기업, 바이전주 업체 등은 3.5%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용자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중 8개 금융기관에 용자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 총 82억원의 육성자금으로 벤처기업·이노비즈, 여성·일반·청년기업 등 총 48개사에 용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2018년도 '강소항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 선정기업' 37개사에 대해 기술혁신 R&D 역량강화 시제품제작 지원, 생산기반 공정개선,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지원, 표준화 인증 지원으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생화차 거리.

군산·익산·정읍, 내달 도시재생사업 착수

군산시 2곳을 비롯해 익산·정읍시 등 전북 4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9월 시작된다.

전북도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도내 6곳(군산 2곳, 익산·정읍·전주·원주는 각각 1곳) 중 군산·익산·정읍의 대상지에 대해 9월 용지매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들 4곳에는 2022년까지 국비 488억원, 지방비 325억 원 등 총 813억원이 단계별로 투입된다.

나머지 전주와 완주는 연말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군산은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

과 공동화석 산지와 연계해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지를 개선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한다.

익산은 익산역 주변의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권 활성화 사업과 특화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정읍은 수성동·장명동·시가지 일대에 생화차 체험관, 내장산 떡 문화관 등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지원으로 쇠락한 옛 도시를 다시 디자인할 기회를 맞게 됐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실패를 거두도록 사업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상가(빌딩) 매매 - 진월동 -

- 대지 1,132㎡
- 건물 4,739㎡(공실없음)
- 매가 78억
- 수익률 6.8%

☎ 010-2602-7266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함술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제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정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오피스텔 급매합니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전망좋음, 즉시 입주가능
- 관리비 저렴, 사무실전용
- 2층, 38평, 9400만원
- 3층, 38평, 8400만원
- 7층, 53평, 1억1400만원
- 8층, 33평,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 주택은 수리해야 할 38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시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9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400
- 월산동 리모델링완료 땅 144㎡ 2층주택 118㎡ 1억9500만 1층인대가능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삼거리 대로변집 계획관리지역 3640㎡ 6억9천
- 전북 신대인 상업지 1213㎡ 은행3억6천 감정6억7천 교환가 4억6천
- 영암 삼호읍 준공단지 땅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3천
- 나주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부근 전 3154㎡ 전원생활용 5300만원
- 월산동 양면도로점 2층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가역 대로점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층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흥농읍 주거지역 5223㎡ 공시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함평역 건너 대로점 2층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상가건물

- 동구 수기동 소방도 코너 4층건물 땅380㎡ 건물990㎡ 은행6억 매도 12억8천
- 장성 삼계면 사창리 중심지 땅 192㎡ 건물 140㎡ 급매 2억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금남로5가 소방도 땅 213㎡ 건평 599㎡ 은행 3억 매도 6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충장로5가 땅 109㎡ 건물 378㎡ 800에 월 115 임대중 3억5천
- 부안군 반산면 도청리 땅 792㎡ 펜션 건평 867㎡ 은행 4억7천 매도 8억2천
- 동구 충장로5가점 수기동 대지 168㎡ 2층건물 투자에 좋음 3억8천
- 카센터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층건물 297㎡ 현재영업중임 4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5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공장부지 매매” (급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임대 741㎡,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7억 ◆ (조정가)

인하건설(주)

010-3605-0214
062) 655-4840